

2023년 3월 26일

금문교회 사순절 제5주일에배 GGPC Lent the 5th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go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to point out to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2 But he answered them, “You see all these, do you not? Truly, I say to you,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마태복음 Matthew 24:1-2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때를 기억합니다.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묵상합니다. 세상길로 나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모든 삶을 집중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광 진리의 온전한 예배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From the Fig Tree Learn Its Lesson!

마태복음 Matthew 24:32-35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From the fig tree, learn its lesson! As soon as its branch becomes tender and puts out its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So al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he is near, at the very gates.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Tru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재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Or do you not realize this about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unless indeed you fail to meet the text!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3:5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써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부활생명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계절을 따라 무화과나무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에서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왔으니까 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말씀의 빛에서 보아야 자연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마태복음 Matthew 24:35

천지(자연)과 주님의 말씀 대비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불완전한 자연계시는 특별계시인 성경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성경말씀의 빛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을 무화과의 잎이 변화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로 알 수 있는 “여름” 은 그 자체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여름이 비유하는 바는 “예수님 재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성경말씀을 따라 시절을 생각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7년 대환난이 옵니다. 예수님 비유의 세계에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7년 대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의 환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만 족한데도 굳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를 허락해 주신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듣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세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세대는 곧 “시간의 흐름” 입니다. 세월은 가고 있는데, 사람이 무심하다면, 그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처럼 들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증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에서 세상 만물을 보고, 모든 일에서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 무화과나무뿐입니까? 버드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자연은 온갖

생물들을 포함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말씀을 묵상합니다: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From the fig tree, learn its lesson! As soon as its branch becomes tender and puts out its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수많은 나무들 중에 굳이 무화과나무를 들어 말씀하신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1:18-22에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 이 있습니다. 호산나 외침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1:19d) *May no fruit ever come from you again!*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마가복음 평행구인 11:13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For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Mark 11:13d

자연의 때로 보면 무화과나무에게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열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 때가 곧 “열매의 때” 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과 시대를 가지고 열매 없는 “핑계” 를 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뜻을 생각합니다. 자연의 일부인 무화과나무에게서 시대를 아는 지혜를 배울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대를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요한복음 John 1:1

무화과나무 대신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빼고 무화과나무만 보았다가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So al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he is near, at the very gates.

보십시오. 결론은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신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를 연구해도,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오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성경말씀”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도록.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Tru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법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세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마태복음 Matthew 16:28

예수님 세대는 예수님을 뵈고, 그 말씀을 들은 세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세대에 따라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도,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시들어 죽더라도, 무화과나무를 놓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목회기도 때 읽은 말씀을 여기 나눕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go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to point out to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2 But he answered them, “You see all these, do you not? Truly, I say to you,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마태복음 Matthew 24:1-2

많은 유대인들은 “영원한 성전”을 상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천지의 현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성경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합니다. 예배 중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히브리서 Hebrews 12:1a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If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골로새서 Colossians 3:1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골로새서 Colossians 3:17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Whatever you do,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and not for men.

골로새서 Colossians 3:23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쫓대를 향하여 전력을 기울이듯이. 우리 쫓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Then will appear in heaven the sign of the Son of Man, and then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마태복음 Matthew 24:31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때” 를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자연의 때” 와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But concerning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nor the Son, but the Father only.

마태복음 Matthew 24:36

오늘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And they were unaware until the flood came and swept them all away.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마태복음 Matthew 24:39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Therefore you also must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마태복음 Matthew 24:44

시대를 봅니다. 말세지말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종말임을 압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시대가 좋아질 거라고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창한 사회주의는 역사의 발전, 곧 “장밋빛 내일” 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이사야 Isaiah 40:8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 Hebrews 13:8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온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마태복음 Matthew 6:48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Therefore, beloved, since you are waiting for these,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without spot or blemish, and at peace.

베드로후서 2 Peter 3:14

온전은 “거룩” 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로마서 Romans 8:26

아멘.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 오실 때, 흠도 티도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